

제3장
주거실태와 출산·혼인력 관계분석
- 결혼차수를 중심으로 -

박준오

I. 서론

1. 연구배경

- 최근 주거문제는 결혼지연 및 출생아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대책을 위한 주택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표본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분석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인구주택총조사,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실태와 출산력·혼인력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가 필요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국내·외 이론적 배경을 검토
 - 주거실태관련 저출산 지표추이 분석
 - 주거실태와 출산력·혼인력의 연관성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빈도분석
 - 부부+미혼자녀수별(0->3명+) 소득계층별 가구의 주거실태 빈도분석
 - 주거실태변수가 총출생아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결정요인 중회귀분석
 - 분석결과를 통한 연구시사점 도출



□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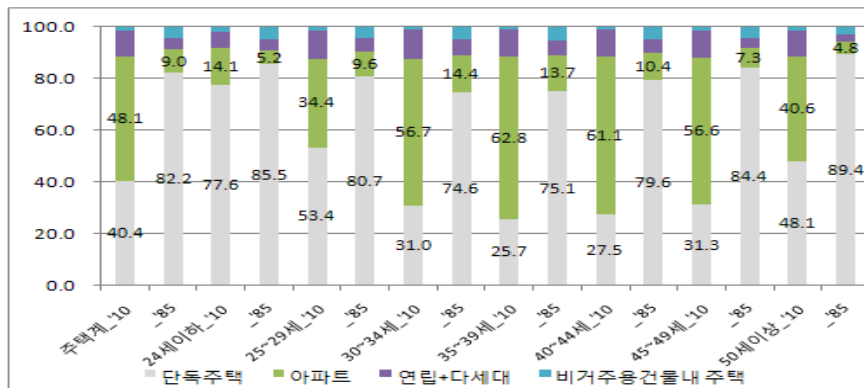
- 선행연구 문헌 검토를 통한 주거실태 관련 변수 선정 및 연구모형 확정
- 중간분석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결혼차수별 주거실태 및 조사시점(2010.11.1. 기준)의 주거실태와 출산·혼인력 관계분석을 실시
 - 주거실태변수(주택유형, 점유형태, 거주기간, 주거면적, 이동소요시간) 가 총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함
- 2012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 미혼자녀수별 소득계층별 가구의 주거실태, 가계수지 등을 빈도분석

Ⅱ. 주거실태 관련 저출산 등 지표

1. 주택유형

- 아파트 비중이 1985년 9.0%에서 48.1%로 2010년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반면 단독주택은 1985년 82.2%에서 2010년 40.4%로 약 2배 감소함
- 30~40대 가구주의 아파트 비중은 2010년에 50%가 넘고 20대 후반은 34.4%이며 연립/다세대는 10.7%임

[그림 3-1] 연령대별 주택유형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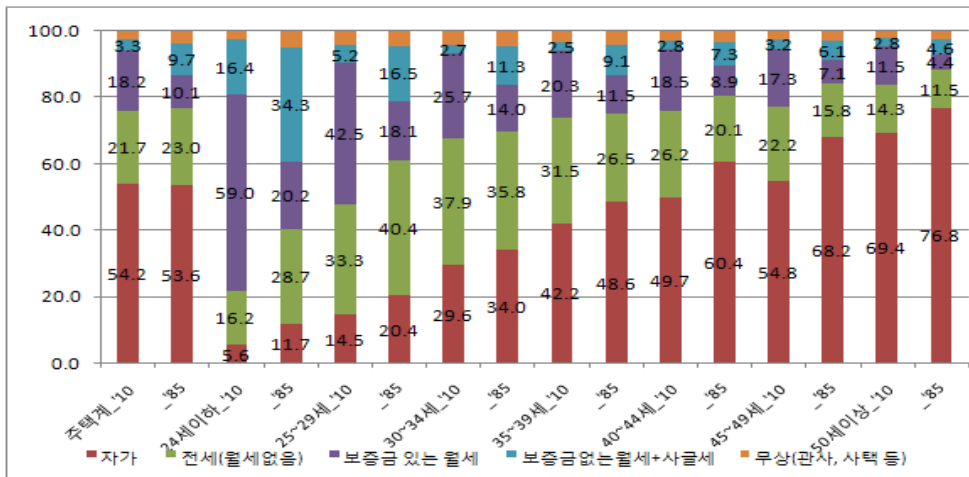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점유형태

- 자거나 전세의 점유형태 비중은 2010년과 1985년 각각 50%, 20%대로 유사하지만 보증금있는 월세는 1985년 10.1%에서 2010년 18.2%로 8.1%p 증가함
- 보증금있는 월세의 가구주 연령별 비중은 2010년에 30대 초반 25.7%, 20대 후반 42.5%, 20대 초반 59%로 가구주연령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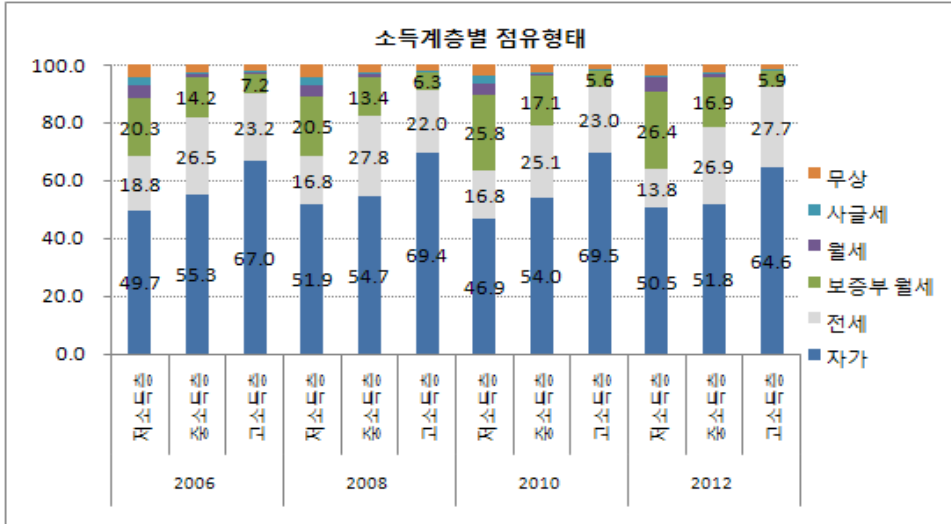
[그림 3-2] 연령대별 점유형태 비중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고소득층일수록 자가비율이 높고 저소득층일수록 보증부월세 비중이 높음
- 저소득층의 보증부월세 점유형태 비중은 2006년 20.3%에서 2012년 26.4%로 6.1%p 증가함

[그림 3-3] 소득계층별 점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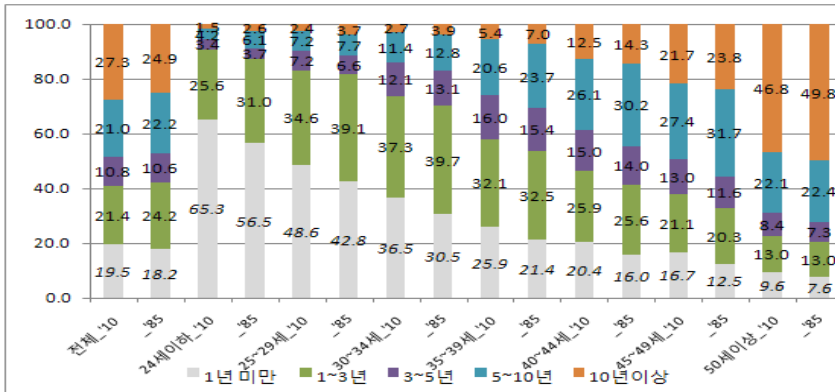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3. 거주기간

- 10년 이상 주택거주기간 비중이 1985년 24.9%에서 2010년 27.3%로 2.4%p 증가하였고 10년 미만은 유사함
-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주택거주기간은 늘어남

[그림 3-4] 연령대별 주택거주기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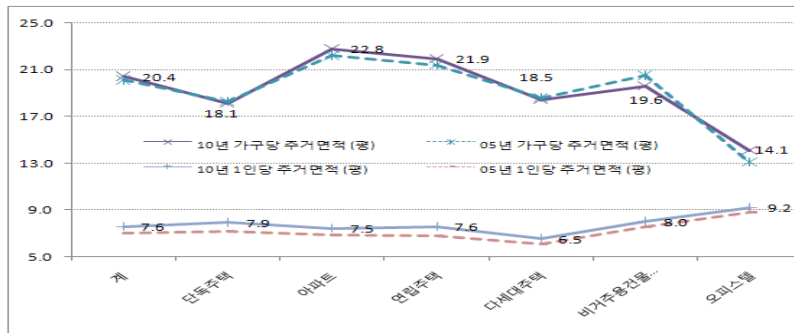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4. 주거면적

- 가구당 주거면적은 '85년에 20.1평에서 '10년 20.4평으로 증가했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증가했음
- 1인당 주거면적은 '85년 7.0평에서 '10년 7.6평으로 증가했고 모든 주택유형에서도 증가했음

[그림 3-5] 가구당/1인당 주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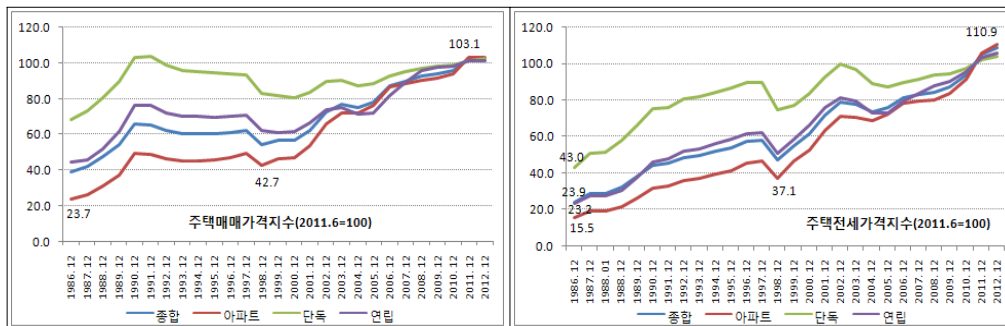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 주택가격

-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주택전세가격지수는 IMF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아파트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998년 42.7에서 2012년 103.1로 141.5% 증가,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998년 37.1에서 2012년 110.9로 198.9%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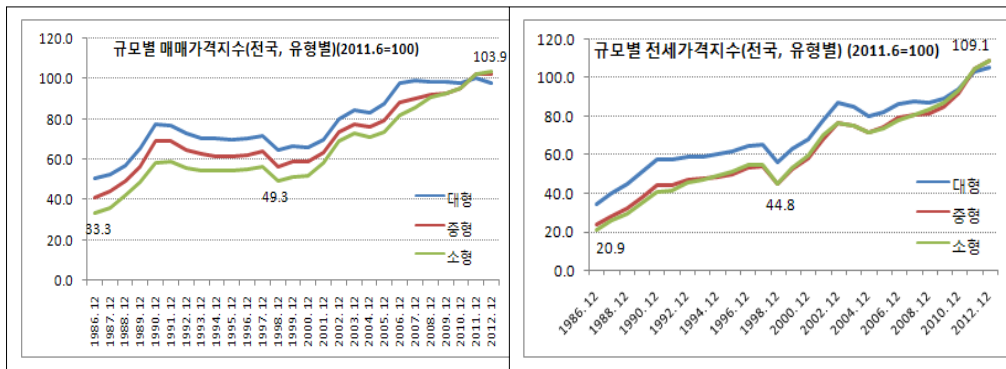
[그림 3-6] 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주택전세가격지수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규모별로 보면 최근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주택전세가격지수 모두 소형규모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소형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49.3(1998.12)에서 103.9(2012.12)로 110.8% 증가했고 주택전세가격지수는 44.8(1998.12)에서 109.1(2012.12)로 143.1%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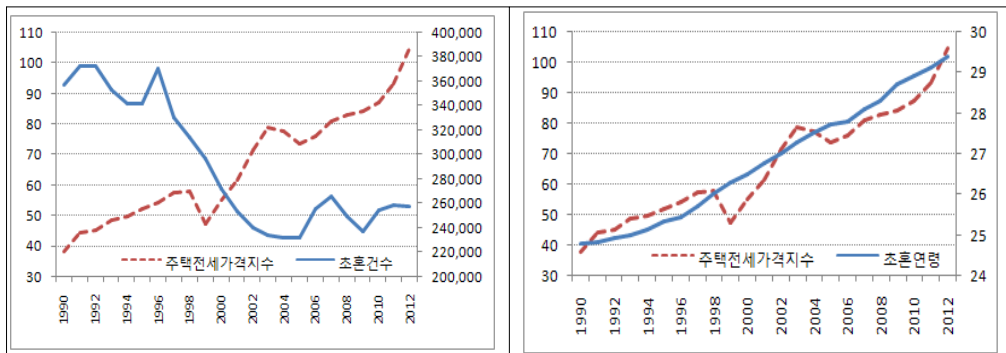
[그림 3-7] 규모별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주택전세가격지수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주택전세가격지수와 초혼건수는 부(-)의 관계를, 주택전세가격지수와 초혼연령은 양(+)의 관계를 보임
 - 주택가격은 결혼에 영향을 미쳐 주택전세가격지수가 증가할수록 초혼건수가 감소하고 초혼연령은 상승세를 나타냄

[그림 3-8] 주택전세가격지수와 초혼건수와 초혼연령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Ⅲ 선행연구 검토

1. 주거실태와 출산혼인력

- 방 1개와 주방으로만 구성된 주거행태가 표준화된 이후 1인당 주거밀도가 낮아져 부부들이 가족규모를 축소하는 경향이 발생함(Goodsell, 1937; Kulu and Vikat, 2007)
- 아파트거주자 중 중하위소득계층인 경우와 도심지역 내 주거밀도가 높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에게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남(Felson & Solauns, 1973)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출산율이 가장 높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출산율이 가장 낮음(Kulu & Vikat, 2007)
- 스웨덴 자료를 이용 주택규모가 첫째아 출산의향과 가장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방의 개수도 첫째아 출산의향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 (Strom, 2009)
- 단독주택 거주여부가 유배우여성의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함(이삼식 외, 2009)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규모가 커질 때 주택규모, 방수, 위치 등 주거환경을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도 함께 커지는데 통상 이러한 환경변화는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더욱 용이함(Mudder and Wagner, 1998)
- 자녀양육비용과 주택구매비용이 경쟁관계에 있을 때 주택소유는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택소유를 중시하는 사회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남(Vignoli et al., 2011)
- 주택을 소유하려는 부부일수록 자녀출산을 연기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후에는 다자녀를 출산하려는 경향이 나타남(Krishman, 1988)
- 주택마련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을지 몰라도 떨어진 직장과 집과의 거리에 따른 교통비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돌봄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도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추가비용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주거실태 관련 국내 정책사례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신혼부부와 관련된 정책의 중점추진과제는 1차 계획(2006~10년)에서는 신혼부부출발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지원, 2차 계획(2011~15년)은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부담경감, 결혼장려지원을 위한 사회적배려강화, 결혼관련 교육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등을 마련함

〈표 3-1〉 출산장려를 위한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내용

구분		신혼부부	다자녀	비고
특별 공급	민간 (85㎡ 이하)	분양	10%	특별공급 청약 먼저 받은 후 일 반공급 청약 시 행
		임대	10%	
	공공 (85㎡ 이하)	분양	15%	
		임대	15%	
관련 법규 조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7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6항	
우선 공급	국민임대	30%	10%	일반공급청약과 함께 받은 후 우 선공급 대상자 먼저 선정
	관련 법규 조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2조 10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2조 6항	

〈표 3-2〉 출산장려를 위한 신규분양주택과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구분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상주택
3자녀이상 가구 특별공급	- 3자녀이상 가구 (자녀는 민법 상 미성년자에 한함)		- 민영주택 및 공공기관 이 건설공급하는 주 택건설량의 3% 범 위내 특별공급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 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1순위-3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60㎡이하 분양주택

〈표 3-3〉 출산장려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구분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상주택
신혼부부 보금자리임대	-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 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1순위-3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85㎡이하 공공건설 임대 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 여 자녀가 있는 자 (1순위-3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85㎡이하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 만원 (신혼부부 200% 허용)
시프트 (Shift)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200 만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60㎡ 미만 (75%를 신혼부부와 3자 녀가구에 우선공급)
	-60㎡ 미만 입주자격과 동일		-60㎡ 이상 85㎡ 이하 (10% 우선공급)
	-서울시 거주 만20세 이상(주택 소유자도 가능)		-85㎡초과
	-서울시 거주 만20세 이상	- 60이하: 월평균소 득 100% 이하 - 60-85: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재건축

〈표 3-4〉 출산관련 주택대출지원

자금명	구분	용자대상자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이자(%)	비고	
					신혼부부 우대	다자녀 우대
최초 주택구입 자금	주택구입 용자	-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최고 2억원이내 -20년(1년 또는 3년 거치)	- 연 4.2% (12월까지 한시) (3인이상 다자녀가구 1.0% 금리우대 가능)	-	○ 금리우대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 (중도금) 자금	주택구입 용자	- 부부합산소득 3,000만원 이하 - 세대원 전원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 신혼가구 4,000만원 이하	- 최고 1억원 이내 (20세미만 3자녀이상 세대는 1.5억원 이내) - 20년(1년 또는 3년 거치)	- 연 5.2% (06.2.23-26 신청분 중 연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연 5.7%) (다자녀가구 1.0% 금리우 대 가능)	○ 연간급여기준	○ 금리우대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자금	주택전세 용자	- 연간급여(소득)가 3,000만원 이하이고,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 - 신혼가구 3,500만원 이하	-최고 8,000만원이내 (3자녀 이상 세대는 1 억원 이내) -2년(최장 8년)	- 연 4.0% (신용대출의 경우 연 5.0%)	○ 연간급여기준	○ 대출한도 우대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주택전세 용자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가구로 전세보증금이 기준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6,000만원 :기타지역-4,000만원 [3자녀이상 세대 :수도권과밀억제권역-1억1천만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7,000만원 :기타지역-5,000만원	[지역별 전세보증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600만원한도(3자 녀 이상 세대는 6,300만원) -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3,500만원(3자 녀이상 세대는 4,200만원) - 기타지역: 2,800만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3,500만원) [대출기간] - 15년	- 연 2.0%	-	○ 대출한도 우대

IV. 주거실태와 혼인출산력 관계 기초분석

1. 주거실태와 혼인력

- 혼인력은 남녀 간에 맺어지는 결혼, 이혼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총칭하는데 대표적인 혼인력의 자료로서 초혼연령, 혼인율 등이 있음

가. 분석자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레코드수는 284,952개(초혼연령별 결혼 15년차 미만 비가중 기준)임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처음 결혼당시의 주거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음으로 가구주의 배우자인 유배우여성이 속한 가구의 주거실태를 분석대상으로 함
 - 결혼 15년차 미만 기준은 경제활동인구 연령이 15세부터 시작되며 출산의 대부분이 결혼 15년차 미만에서 출산이 완결되기 때문임

나. 분석방법

- 가중치를 적용한 빈도분석을 통해 유배우여성의 결혼차수별 주거실태(주택종류, 점유형태, 주거용면적)별 비중, 결혼차수별 주택유형별 점유형태 비중, 결혼 1년차 주거실태별 초혼연령*을 분석함
- 결혼차수는 2010년 센서스기준(2010.11.1)에서 초혼년월을 차감하여 계산함
 - 센서스 초혼년월은 초혼일이 없으므로 1일 기준으로 초혼년월일로 환산함(예 : 2010. 10. → 2010. 10. 1.)
- 결혼 1년차 분석은 거주기간 1년 미만이면서 결혼 1년차인 사례 13,750개(결혼 1년차 주택유형 비가중 기준)를 분석대상으로 함
 - 거주기간은 센서스에서 해당가구에서 가장 오래 살고있는 사람 기준이지만 동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유배우여성도 거주기간이 같을 것으로 가정함



- 주택이외의 거처를 제외한 주택유형 중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은 주택비중이 과소(1% 미만) 및 일반적인 주택유형이 아니므로 자료처리에는 포함하였으나 분석에서 제외함
- 연구가설1. 주거실태변수와 유배우여성의 초혼연령은 서로 연관성이 있으며 결혼차수별로 차이가 있을 것임
- 자료처리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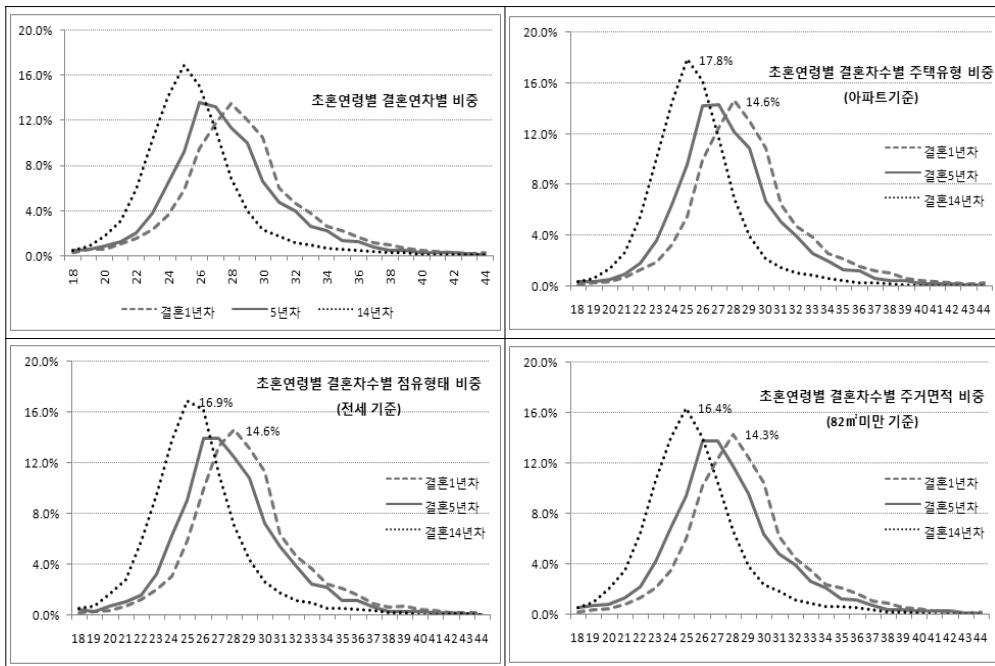
다. 분석결과

□ 초혼연령별 결혼차수별 주거실태 비율

- (전체)결혼차수가 낮을수록 초혼연령은 늦어지고 있으며(초혼연령 곡선에서 결혼 1년차는 가장 오른쪽에 있음) 결혼차수가 높아질수록 단독주택, 자기집, 주거면적이 115m²+에서 거주비율이 증가함
- (주택유형)전반적으로 결혼차수 관계없이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지만 결혼차수가 높아질수록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증가함
 - 결혼 1년차의 초혼연령별 최대 비중은 28세에서 아파트 14.6%, 연립다세대 13.9%, 단독주택 10.3% 순으로 가장 높음
 - 결혼 5년차는 초혼연령 27세에서 아파트 14.3%이며, 26세에서 연립다세대 13.0%, 단독주택 11.8%로 가장 높음
 - 결혼 14년차는 초혼연령 25세에서 아파트 17.8%, 연립다세대 15.8%, 단독주택 13.9%로 가장 높음
- (점유형태)결혼차수가 높아질수록 자기집 점유비율은 높아짐
 - 결혼 1년차의 연령별 최대 점유형태 비중은 28세에서 무상 14.7%, 전세 14.6%, 자기집 13.8%이며 31세 월세·사글세 10.2%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 결혼 5년차의 연령별 최대 점유형태 비중은 26세에서 자기집 14.0%, 월세·사글세 12.8%이며 27세에서 전세 13.9%, 무상 13.7%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 결혼 14년차의 연령별 최대 점유형태 비중은 25세에서 자기집 17.7%, 무상 17.1%, 전세 16.9%, 월세·사글세 12.7%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 (주거면적)결혼차수가 높아질수록 115㎡+ 거주비율은 증가함
 - 결혼 1년차의 초혼연령별 주거면적 최대 비중은 28세에서 82㎡ 미만 14.3%, 82~115㎡ 14.2%, 115㎡+ 11.5%로 가장 높음
 - 결혼 5년차는 27세에서 82㎡ 미만 13.7%, 26세에서 82~115㎡ 14.1%, 115㎡+ 12.9%로 가장 높음
 - 결혼 14년차는 25세에서 115㎡+ 19.0%, 82~115㎡ 17.7%, 82㎡ 미만 16.4%로 가장 높음

[그림 3-9] 초혼연령별 결혼차수별 주거실태 비중



□ 결혼차수별 주택유형별 점유형태 비중

- (전체)결혼기간이 지속될수록 자기집 아파트 비율은 증가함

- 결혼 1~3년차는 전세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결혼 4년차 이후 자기집 아파트 거주비중이 가장 높으며 결혼 14년차에서는 자기집 아파트 비중이 전체가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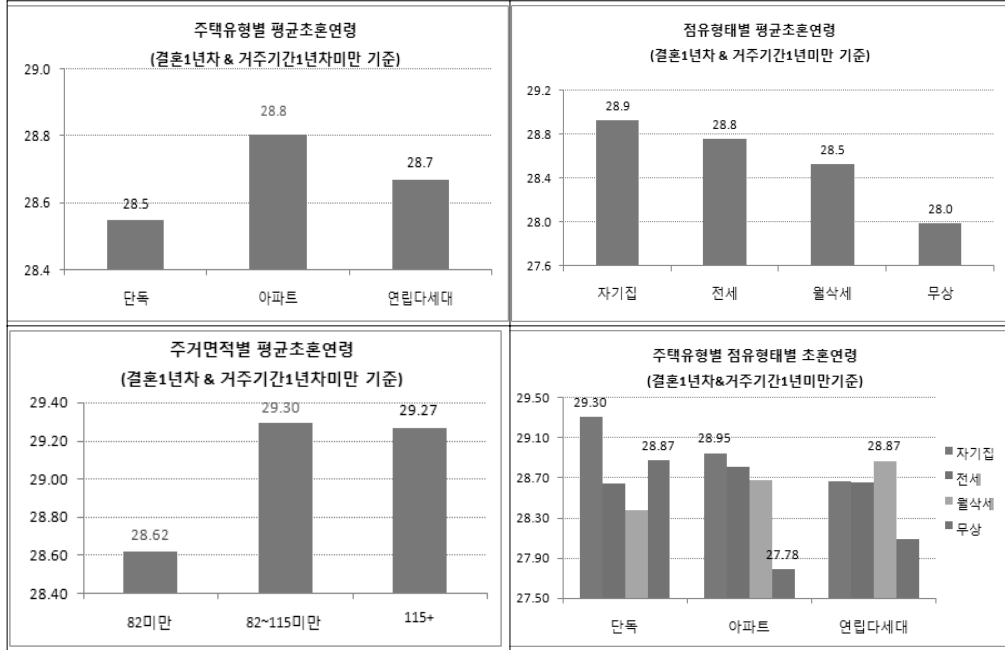
〈표 3-5〉 결혼차수별 주택유형별 점유형태 비중

결혼차수	주택유형별 점유비중		
	1순위	2순위	3순위
결혼1년차	아파트+전세, 30.9%	아파트+자기집, 23.1%	단독주택+월/사글세, 9.9%
결혼2년차	아파트+전세, 31.5%	아파트+자기집, 23.4%	단독주택+전세, 9.0%
결혼3년차	아파트+전세, 28.8%	아파트+자기집, 28.5%	단독주택+전세, 9.0%
결혼4년차	아파트+자기집, 31.4%	아파트+전세, 27.4%	아파트+월/사글세, 8.1%
결혼5년차	아파트+자기집, 35.0%	아파트+전세, 25.3%	아파트+월/사글세, 7.8%
결혼14년차	아파트+자기집, 49.4%	아파트+전세, 15.1%	단독주택+전세, 5.8%

□ 결혼 1년차 주거실태별 초혼연령

- (전체)결혼 1년차 초혼여성은 아파트에서 28.8세, 자기집에서 28.9세, 주거면적 82~115㎡ 미만에서 29.3세로 평균초혼연령이 상대적으로 가장 늦음
 - 반면, 단독주택 28.5세, 무상 28세, 82㎡ 미만 28.6세로 평균초혼연령이 가장 빠름
 - (주택유형)아파트 28.8세 > 연립다세대 28.7세 > 단독주택 28.5세 > 순으로 평균초혼연령이 높음
 - (점유형태)자기집 28.9세 > 전세 28.8세 > 월/사글세 28.5세 > 무상 28.0세 순으로 평균초혼연령이 높음
 - (주거면적)82~115㎡ 미만 29.3세 > 115㎡+ 29.27세 > 82㎡ 미만 28.62세 순으로 평균초혼연령이 높음
- 주택유형별 점유형태별 평균초혼연령은 자기집 단독주택 29.3세 > 자기집 아파트 28.95세 > 무상 단독주택, 월삭세 연립다세대 28.87세 등 순임
 - 반면, 무상 아파트는 27.78세로 평균초혼연령이 가장 빠름

[그림 3-10] 결혼 1년차 주거실태별 평균초혼연령



2. 주거실태와 출산력

- 출산력은 결혼, 피임, 건강,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들이 아이를 실제로 출산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총출생자녀수, 출산율, 재생산율, 출산진도비(PPR), 모아비 등이 있음

가. 분석자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레코드수는 284,952개(결혼 15년차 미만 비가중 기준)임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자녀출산시의 주거실태 파악이 곤란하므로 센서스기준(2010.11.1) 가구주의 배우자인 유배우여성이 속한 가구의 주거실태와 총출생아수를 분석대상으로 함
 - 결혼 15년차 미만 기준은 경제활동인구 시작나이인 만15세와 출산의 대부분 결혼 15년차 미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임

나.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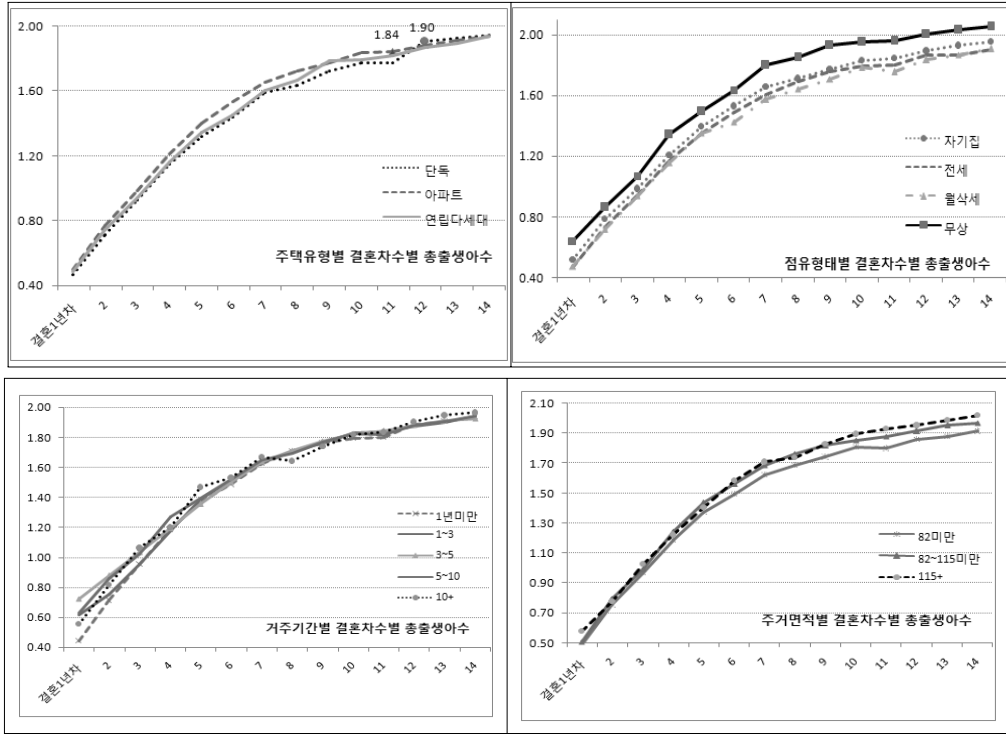
- 가중치를 적용한 빈도분석을 통해 유배우여성의 결혼차수별 주거실태 (주택종류, 점유형태, 거주기간, 주거용연면적)별 결혼차수별 총출생아수, 결혼차수별 주택유형별 점유형태별 총출생아수*를 분석함
 - * 모가 직접 출산한 자녀수(생존+사망)를 의미함
- 연구가설1. 주거실태변수와 유배우여성의 총출산아수는 서로 연관성이 있으며 결혼차수별로 차이가 있을 것임
- 자료처리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함

다. 분석결과

□ 주거실태별 결혼차수별 총출생아수

- (전체)전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무상에서,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거면적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총출생아수가 가장 많음
- (주택유형)전체적으로 아파트 1.53명 > 연립/다세대 1.44명 > 단독 1.43명 순임
 - 결혼 1년차~11년차는 아파트에서 0.5명~1.84명, 12년차 이후는 단독주택에서 1.90~1.95명으로 총출생아수가 가장 많음
- (점유형태)전체적으로 자기집, 무상 1.61명 > 월·사글세 1.39명 > 전세 1.37명 순임
 - 결혼 1년차~14년차 모두 무상에서 총출생아수가 가장 많음
- (거주기간)결혼 1~2년차, 9년차, 11년차는 거주기간 3~5년에서, 결혼 3년차, 5~7년차, 12~14년차는 거주기간 10년+에서, 결혼 4년차는 거주기간 5~10년에서 총출생아수가 가장 많음
- (주거면적)결혼 1년차, 3년차, 6~7년차, 9~14년차는 주거면적 115m²+에서, 결혼 2년차, 4~5년차, 8년차는 82~115m² 미만에서 총출생아수가 가장 많음

[그림 3-11] 결혼차수별 주거실태별 총출생아수



□ 결혼차수별 주택유형별 점유형태별 총출생아수

- (전체)결혼 5년차 미만인 경우, 무상 연립/다세대, 무상 단독주택에서 상대적으로 총출생아수가 가장 많음
- 반면, 월·사글세 단독주택에서 총출생아수가 가장 적음
- 결혼 1년차는 무상 단독주택에서 0.67명으로 가장 많음
- 결혼 2~3년차, 결혼 5~10년차, 결혼 14년차 무상에서 가장 많음
- 결혼 4년차, 결혼 11년차는 무상아파트에서 각각 1.39, 1.99명으로 가장 많음
- 결혼 5~10년차는 무상아파트 1.39명으로 가장 많음
- 결혼 12~13년차는 자기집 단독주택에서 각각 2.06명, 2.05명으로 가장 많음

〈표 3-6〉 결혼차수별 주택유형별 점유형태별 총출생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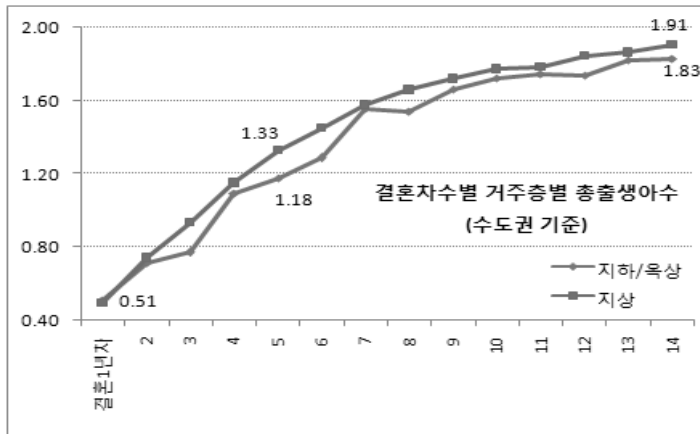
결혼차수	주택유형별 점유형태별 총출생아수			
	상위 1위	상위 2위	상위 3위	하위 1위
결혼1년차	무상 단독주택, 0.67명	무상 아파트, 0.64명	무상 연립/다세대, 0.63명	전세 연립다세대, 0.44명
결혼2년차	무상 연립/다세대, 1.02명	자기집 단독주택, 0.88명	무상 아파트, 0.87명	월삭세 단독주택, 0.67명
결혼3년차	무상 연립/다세대, 1.18명	자기집 단독주택, 1.12명	무상 아파트, 0.12명	월삭세 단독주택, 0.85명
결혼4년차	무상 아파트, 1.39명	무상 연립다세대, 1.35명	자기집 단독주택, 1.28명	월삭세 단독주택, 1.05명
결혼5년차	무상 연립다세대, 1.68명	무상 아파트, 1.51명	월삭세 아파트, 1.45명	월삭세 단독주택, 1.24명
결혼14년차	무상 연립다세대, 2.11명	무상 단독주택, 2.09명	자기집 단독주택, 2.08명	전세 단독주택, 1.86명

주: 주거비중이 작아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제외

□ 결혼차수별 거주층별 권역별 총출생아수

- 취약거주층(지하/옥상) 거주비중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93.9%, 광역시 3.8%, 시도 2.3%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지하/옥상층에 거주하는 결혼 1년차의 총출생아수는 0.51명이며 지상층은 0.50명임
- 반면, 결혼 2년차 이후로는 지하/옥상층에 비해 지상층의 총출생아수가 더 많음

[그림 3-12] 결혼차수별 거주층별 총출생아수(수도권 기준)





3. 미혼자녀수별 가구 주거실태

- 미혼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의 주거실태 및 가계수지 구조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나빠질 가능성이 크므로 미혼자녀수별 가구소득별 주거실태분석이 필요함

가. 분석자료

- 2012년 가계동향조사 마스터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부부+미혼자녀(0~>3명 이상, 15세 미만)가 있는 가구수는 4,906개(비가중 기준임)를 분석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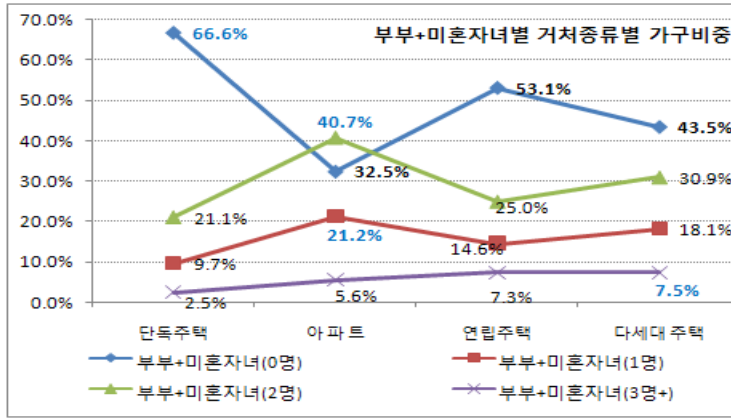
나. 분석방법

- 가중치를 적용한 빈도분석을 통해 부부+미혼자녀수별 · 소득계층별 주거실태(주택종류, 입주형태, 주택소유여부, 사용면적, 가계수지 등) 항목을 분석함
 - 부부+미혼자녀수는 0자녀,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으로 분류하고 소득계층별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가구소득 10분위수를 저소득층(1~4분위), 중소득층(5~8분위), 고소득층(9~10분위)으로 분류함
- 연구가설2. 미혼자녀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주거실태에 차이가 있을 것임
- 자료처리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함

다. 분석결과

- 거처종류
 - (전체) 미혼자녀수 관계없이 거처종류 중 아파트거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음
 - 부부+미혼자녀(0명) 44.8%, 부부+미혼자녀(1명) 70.5%, 부부+미혼자녀(2명) 70.7%, 부부+미혼자녀(3명+) 62.45%임
 - 부부+미혼자녀(0명) 가구는 단독주택 거주비중이 66.6%, 부부+미혼자녀(1~2명) 아파트는 각각 21.2%, 40.7%이며 부부+미혼자녀(3명 이상)는 다세대주택은 7.5%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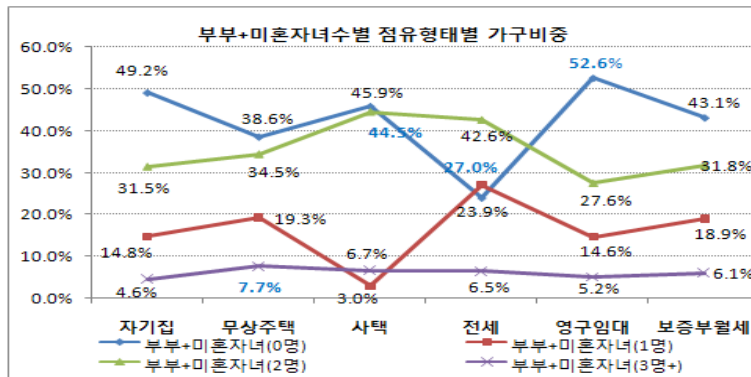
[그림 3-13] 부부미혼자녀별 거처종류별 가구비중



□ 점유형태

- (전체)점유형태별 기준으로 미혼자녀수 관계없이 자기집 거주비율이 가장 많음
 - 부부+미혼자녀(0명) 72.3%, 부부+미혼자녀(1명) 52.4%, 부부+미혼자녀(2명) 58.4%, 부부+미혼자녀(3명+) 54.7%임
 - 부부+미혼자녀(0명)가구는 영구임대 52.6%, 부부+미혼자녀(1명) 전세 27.0%, 부부+미혼자녀(2명) 사택 44.5%, 부부+미혼자녀(3명+) 가구는 무상주택 7.7% 점유형태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음

[그림 3-14] 부부+미혼자녀수별 점유형태별 가구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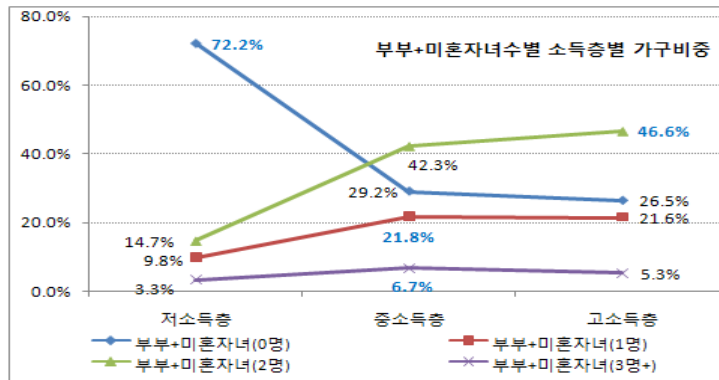




□ 소득계층별

- 미혼자녀수별 기준시 부부+미혼자녀(1~3명+) 가구의 중소득층 비중은 약 60%대로 가장 많고 저소득층은 56%로 부부+미혼자녀(0명) 가구가 가장 많음
- 부부+미혼자녀(0명)의 저소득층 비중은 72.2%, 부부+미혼자녀(1명, 3명)의 중소득층 비중이 각각 21.8%, 6.7%, 부부+미혼자녀(2명)의 고소득층 비중은 46.6%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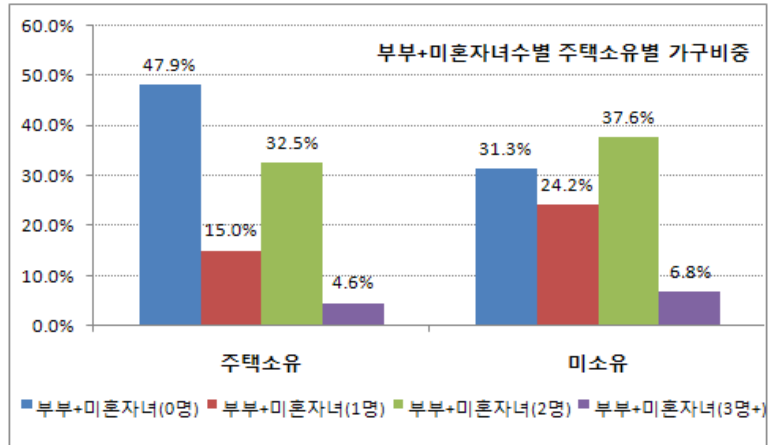
[그림 3-15] 부부+미혼자녀수별 소득계층별 가구비중



□ 주택소유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미혼자녀수 관계없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부부+미혼자녀(0명) 77.9%, 부부+미혼자녀(1명) 58.8%, 부부+미혼자녀(2명) 66.6%, 부부+미혼자녀(3명+) 60.9%임
- 부부+미혼자녀(1->3명+)의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비중이 각각 24.2%, 37.6%, 6.8%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 반면, 부부+미혼자녀(0명)의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비중은 47.9%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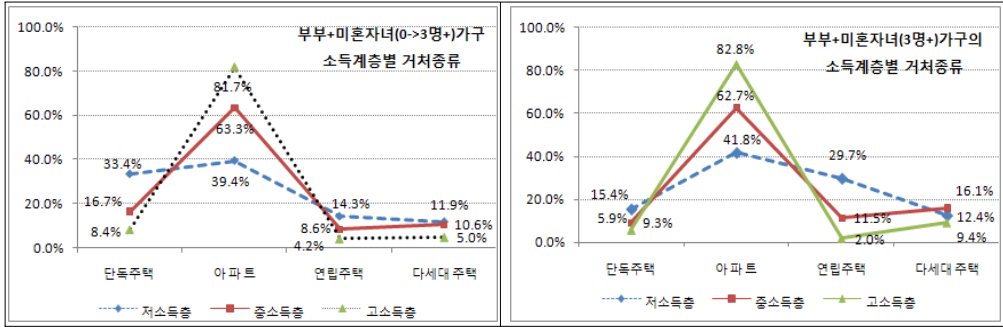
[그림 3-16] 부부+미혼자녀수별 주택소유별 가구비중



□ 미혼자녀수별 소득계층별 거주종류

- 소득계층별 기준시 미혼자녀수 관계없이 저소득층은 단독주택에서, 중소득층은 다세대주택에서, 고소득층은 아파트에서 거주비율이 높음
 - 부부+미혼자녀(0명) 가구의 저소득층은 단독주택 37.3%,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고소득층은 아파트에서 상대적으로 거주비율이 높음
 - 부부+미혼자녀(1명) 가구의 저소득층은 단독주택, 연립주택에, 중소득층은 다세대주택에, 고소득층은 아파트에서 상대적으로 거주비율이 높음
 - 부부+미혼자녀(2명) 가구의 저소득층은 단독주택, 연립주택에서, 중소득층은 다세대주택에서, 고소득층은 아파트 85.6%로 상대적으로 거주비율이 높음
 - 부부+미혼자녀(3명+) 가구의 저소득층은 단독주택, 연립주택에서, 중소득층은 다세대주택 16.1%, 고소득층은 아파트에서 상대적으로 거주비율이 높음
- 부부+미혼자녀(3명+) 가구는 부부+미혼자녀(1~2명) 가구에 비해 단독, 아파트 거주비율은 적고 연립, 다세대주택 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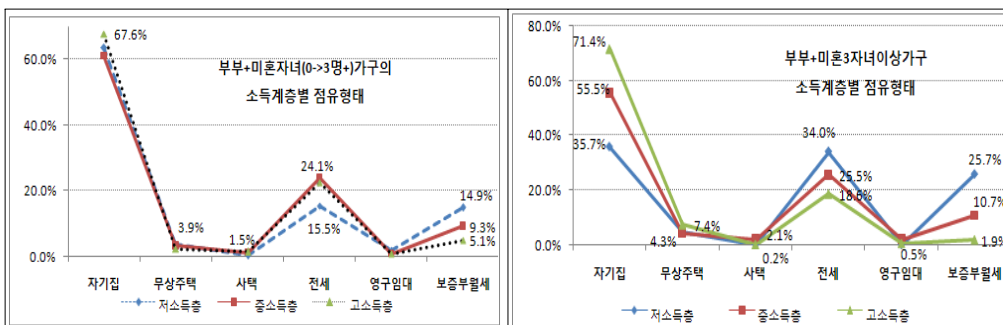
[그림 3-17] 소득계층별 거처종류별 부부+미혼자녀(0→3명+) 가구비중



□ 미혼자녀수별 소득계층별 점유형태

- 부부+미혼자녀(0명) 가구의 저소득층은 보증부월세 12.2%, 무상주택 3.9%, 영구임대 20%의 점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득층은 자기집 72.5%, 고소득층은 전세 14.3%로 점유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 부부+미혼자녀(1명) 가구의 저소득층은 보증부월세 24%, 영구임대 25%, 중소득층은 전세 35.7%, 고소득층은 자기집 67.8% 점유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 부부+미혼자녀(2명) 가구의 저소득층은 전세 30.7%, 보증부월세 19.8%이며 고소득층은 자기집 64.5%로 점유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 저소득층 부부+미혼자녀(3명+) 가구는 전계층에서 보증부월세 비중이 25.7%로 가장 높음
 - 저소득층은 전세 34%, 보증부월세 25.7%, 중소득층은 사택 2.1%, 영구임대 1.9%, 고소득층은 자기집 71.4% 점유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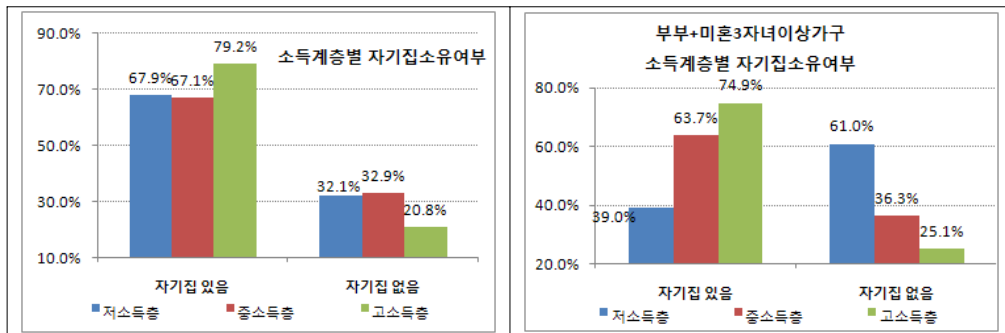
[그림 3-18] 소득계층별 점유형태별 부부+미혼자녀(0→3명+) 가구비중



□ 미혼자녀수별 소득계층별 주택소유 및 주거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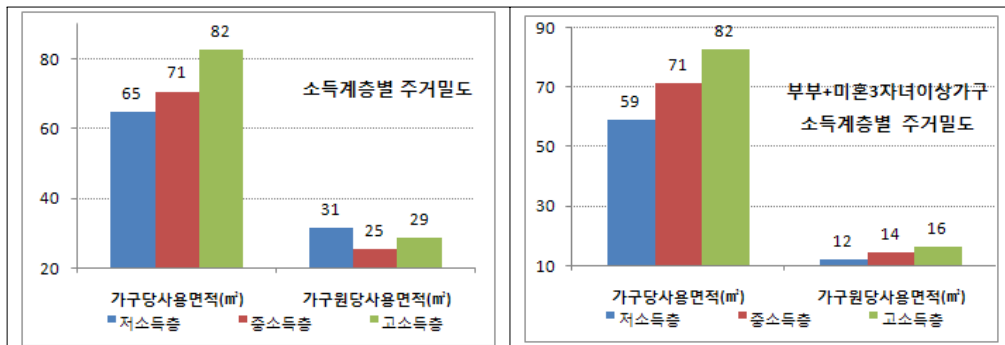
-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소유률이 높아지며 미혼자녀수 관계없이 저소득층의 자기집 소유율이 가장 적음

[그림 3-19] 소득계층별 주택소유여부(미혼자녀 3명+과 비교)



- 부부+미혼자녀(3명+) 가구는 부부+미혼자녀(2명) 가구에 비해 주택미소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부부+미혼자녀(3명+) 가구의 저소득층은 전체층에서 주택미소유률이 61.0%로 가장 높음
- 미혼자녀수 관계없이 소득이 많을수록 가구당 사용면적은 크며 미혼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원당 사용면적은 적어짐
- 부부+미혼자녀(3명+) 가구는 부부+미혼자녀(2명) 가구에 비해 가구당 사용면적과 가구원 사용면적은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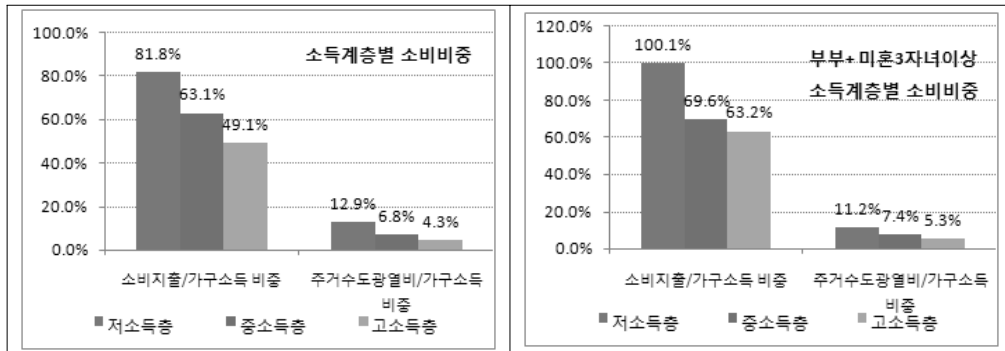
[그림 3-20] 소득계층별 주거밀도(미혼자녀 3명+과 비교)



□ 미혼자녀수별 소득계층별 가계수지

- 소득이 적을수록 소비지출,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이 많으며 미혼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비지출과 주거비 비중이 커짐
- 부부+미혼자녀(3명+) 가구소득이 부부+미혼자녀(1~2명) 가구소득에 비해 적고 소비지출, 주거수도광열비는 많음
 - 부부+미혼자녀(3명+) 가구의 저소득층은 소비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으며, 부부+미혼자녀(2명) 가구의 저소득층은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음

[그림 3-21] 소득계층별 소비비중(미혼자녀 3명+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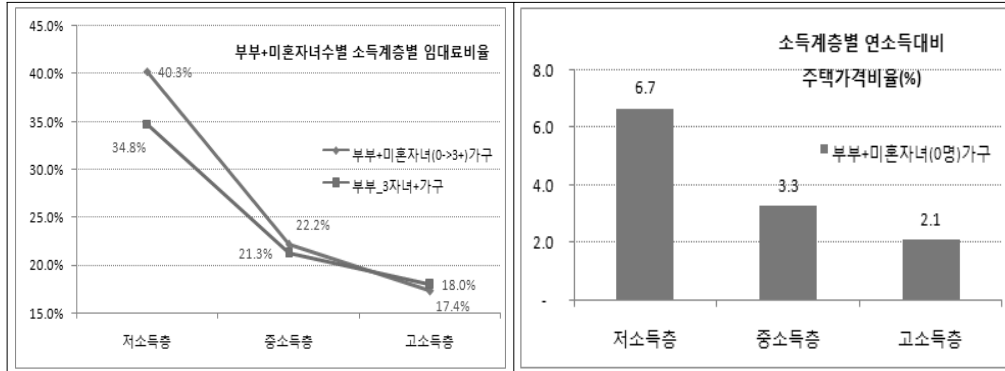
- 부부+미혼자녀(0>3명+)가구 모두 저소득층일수록 임대료비율*은 높으며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중 부부+미혼자녀(3명+) 가구의 저소득층은 임대료비율이 34.8%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 임대료비율 = (월세평가액×12개월) / 가구연소득 * 100

- 소득계층별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저소득층 부부가구가 6.7배로 가장 높음

* 주택구입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대출하지 않고 자력으로 주택구입을 위해 모든 소득을 저축할 때 주택구입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함

[그림 3-22] 미혼자녀수별 소득계층별 임대료비율과 소득계층별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V. 주거실태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자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전체 분석 레코드수는 284,952개임(결혼 15년차 미만 비가중 기준)임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자녀출산 시의 주거실태 파악이 곤란하므로 센서스기준(2010.11.1.) 가구주의 배우자인 유배우여성이 속한 가구의 주거실태와 총출생아수를 분석대상으로 함
 - 결혼 15년차 미만 기준은 경제활동인구 시작나이인 만15세와 대부분 출산이 완결되는 결혼 15년차 미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임

2. 분석방법

- 가중치를 적용한 중회귀분석을 통해 주거실태(주택종류, 점유형태, 거주기간, 주거용연면적, 이동소요시간)가 유배우여성의 총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
- 분석변수는 선행연구, 자료가용성 등을 참조하여 선정함
- 자료처리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함

〈표 3-7〉 연구모형 분석변수 현황

	변수	변수선정이유	변수정의
종속변수	총출생아수	조사시점(2010.11.1.현재)까지의 가구주의 배우자인 유배우여성의 총출생아수	단위 : 명

	변수	변수선정이유	변수정의
통제변수	현재나이	고연령층으로갈수록 출산자녀수가 많을 것임	만나이(단위 : 세)
	초혼연령	주거실태 관련 매개변수로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임	만나이(단위 : 세)
	거주지	도시와 농촌의 주택유형별 공급물량, 주택가격이 다를 것임	0.농촌, 1.도시
	학력	자녀교육 등으로 주택유형이나 주거환경 선호도가 다를 것임	0.고졸 이하, 1.대졸 이상
	직업	소득 대체변수로 경제상황에 따른 주거실태가 다를 것임	0.무직, 1.화이트칼라, 2.블루칼라, 3.농림어업
독립변수	주택유형	현재 거주하고있는 주택	0.단독, 1.아파트, 2.연립/다세대, 3.비거주용건물내주택
	점유형태	자기집일수록 출산아수가 많을 것임	0.자가, 1.전세, 2.월/사글세, 3.무상
	거주기간	주거의 안전성 파악	0.1년 미만, 1.1~3년, 2.3~5년, 3.5~10년, 4.10년+
	주거면적	주택규모가 클수록 출생아수가 많을 것임	0.82㎡ 미만, 1.82~115㎡, 3.115㎡ 이상
	이동소요 시간	통근시간이 오래 걸리수록 출산력에 부적영향을 미칠 것임	단위 : 분

주 : 1) 0은 기준집단임
 2) 화이트칼라(관리, 전문, 사무, 군인), 블루칼라(서비스, 판매, 조작, 기능, 단순)로 분류함

○ 연구모형

종속변수	통제/독립변수
총출생아수	=현 현재나이 + 초혼연령 + 거주지 + 학력 + 직업 + 주택유형 + 점유형태 + 거주기간 + 주거면적 + 이동소요시간



○ 연구가설

- 주거실태변수가 유배우여성의 총출산아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임

3. 분석결과

□ 모형 1

총출생아수(종속변수) = 통제변수(현재나이, 초혼연령, 거주지, 학력, 직업) + 주택유형(독립변수)

-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 총출생아수에 양(+)적 영향을 미침(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 통제시)
 - 유배우여성 현재나이가 1세 증가하면 출생아수는 0.62명 증가함
 - 유배우여성 초혼연령이 1세 많아질수록 출생아수는 -0.59명 감소함
 - 도시거주 유배우여성은 농촌에 비해 출생아수가 -0.05명 적음
 - 대학 이상 유배우여성은 고등 이하에 비해 출생아수가 -0.01명 적음
 - 화이트칼라 유배우여성은 무직자(전업주부 등 포함)에 비해 출생아수가 -0.09명 적음
 - 농림어업 유배우여성은 무직에 비해 출생아수가 0.001명 많음
 - 블루칼라 유배우여성은 무직에 비해 출생아수가 -0.06명 적음
 - 아파트에 사는 유배우여성은 단독주택 거주자에 비해 출생아수가 0.04명 많음
 - 연립/다세대에 사는 유배우여성은 단독주택에 비해 출생아수가 0.01명 많음

□ 모형 2

총출생아수(종속변수) = 현재나이, 초혼연령, 거주지, 학력, 직업 (통제변수) + 점유형태(독립변수)

- 전세나 월세/사글세, 무상 점유형태는 자기집에 비해 총출생아수에



부(-)적 영향을 미침(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 통제시)

- 유배유여성 현재나이가 1세 증가하면 출생아수는 0.61명 증가함
- 유배유여성 초혼연령이 1세 많아질수록 출생아수는 -0.58명 감소함
- 도시거주 유배유여성은 농촌에 비해 출생아수가 -0.04명 적음
- 대학 이상 유배유여성은 고등 이하에 비해 출생아수가 -0.01명 적음
- 화이트칼라 유배유여성은 무직자(전업주부 등 포함)에 비해 출생아수가 -0.09명 적음
- 농림어업 유배유여성은 무직에 비해 출생아수가 -0.004명 적음
- 블루칼라 유배유여성은 무직에 비해 출생아수가 -0.06명 적음
- 전세에 사는 유배유여성은 자기집 거주자에 비해 출생아수가 -0.04명 적음
- 월세/사글세에 사는 유배유여성은 단독주택에 비해 출생아수가 -0.04명 적음
- 무상에 사는 유배유여성은 단독주택에 비해 출생아수가 -0.001명 적음

□ 모형 3

총출생아수(종속변수) = 현재나이, 초혼연령, 거주지, 학력, 직업
(통제변수) + 거주기간(독립변수)

- 1년 미만 거주기간에 비해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거주자는 모두 총출생아수에 양(+)적 영향을 미침(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 통제시)
 - 유배유여성 현재나이가 1세 증가하면 출생아수는 0.60명 증가함
 - 유배유여성 초혼연령이 1세 많아질수록 출생아수는 -0.58명 감소함
 - 도시거주 유배유여성은 농촌에 비해 출생아수가 -0.05명 적음
 - 대학 이상 유배유여성은 고등 이하에 비해 출생아수가 -0.001명 적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화이트칼라 유배유여성은 무직자(전업주부 등 포함)에 비해 출생아수가 -0.09명 적음

- 농림어업 유배유여성은 무직자에 비해 출생아수가 -0.002명 적음
- 블루칼라 유배유여성은 무직자에 비해 출생아수가 -0.06명 적음
- 거주기간 1~3년 미만 거주자는 1년 미만 거주자에 비해 0.05명 총출생아수가 많음
- 거주기간 3~5년 미만 거주자는 1년 미만 거주자에 비해 0.06명 총출생아수가 많음
- 거주기간 5~10년 미만 거주자는 1년 미만 거주자에 비해 0.05명 총출생아수가 많음
- 거주기간 10년 이상 거주자는 1년 미만 거주자에 비해 0.02명 총출생아수가 많음

□ 모형 4

총출생아수(종속변수) = 현재나이, 초혼연령, 거주지, 학력, 직업
(통제변수) + 주거용연면적(독립변수)

- 82m² 미만 거주자에 비해 82~115m² 미만, 115m² 이상 거주자는 모두 총출생아수에 양(+)적 영향을 미침(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 통제시)
 - 유배유여성 현재나이가 1세 증가하면 출생아수는 0.60명 증가함
 - 유배유여성 초혼연령이 1세 많아질수록 출생아수는 -0.58명 감소함
 - 도시거주 유배유여성은 농촌에 비해 출생아수가 -0.04명 적음
 - 대학 이상 유배유여성은 고등 이하에 비해 출생아수가 -0.01명 적음
 - 화이트칼라 유배유여성은 무직자(전업주부 등 포함)에 비해 출생아수가 -0.09명 적음
 - 농림어업 유배유여성은 무직에 비해 출생아수가 -0.003명 적음
 - 블루칼라 유배유여성은 무직에 비해 출생아수가 -0.06명 적음
 - 82~115m² 미만 거주자는 82m²미만에 비해 총출생아수가 0.06명 많으며 115m² 이상은 0.04명 많음



□ 모형 5

총출생아수(종속변수) = 현재나이, 초혼연령, 거주지, 학력, 직업
(통제변수) + 이동소요시간(독립변수)

- 이동소요시간이 증가할수록 총출생아수에 부(-)적 영향을 미침(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 통제시)
 - 유배유여성 현재나이가 1세 증가하면 출생아수는 0.62명 증가함
 - 유배유여성 초혼연령이 1세 많아질수록 출생아수는 -0.59명 감소함
 - 도시거주 유배유여성은 농촌에 비해 출생아수가 -0.04명 적음
 - 대학 이상 유배유여성은 고등이하에 비해 출생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화이트칼라 유배유여성은 무직자(전업주부 등 포함)에 비해 출생아수가 -0.07명 적음
 - 농림어업 유배유여성은 무직에 비해 출생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블루칼라 유배유여성은 무직에 비해 출생아수가 -0.04명 적음
 - 이동소요시간 1분이 증가할수록 총출생아수는 -0.04명 적어짐

□ 모형 6

총출생아수(종속변수) = 현재나이+ 초혼연령+ 거주지+ 학력+ 직업(통제
변수) + 주택유형+ 점유형태+ 거주기간+ 주거용연면적+ 이동소요시간
(독립변수)

- 아파트, 연립주택에 살거나, 무상이거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주거면적이 82㎡ 이상인 경우에 총출생아수에 정(+)적 영향을 미침(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 통제시)
 - 전세나 월·사글세로 거주하거나, 이동소요시간에 증가하는 경우에 총출생아수에 부(-)적 영향을 미침
 - 유배유여성 현재나이가 1세 증가하면 출생아수는 0.6명 증가함

- 유배유여성 초혼연령이 1세 많아질수록 출생아수는 -0.56명 감소함
- 도시거주 유배유여성은 농촌에 비해 출생아수가 -0.04명 적음
- 대학 이상 유배유여성은 고등 이하에 비해 출생아수가 -0.02명 적음
- 화이트칼라 유배유여성은 무직자(전업주부 등 포함)에 비해 출생아수가 -0.07명 적음
- 농림어업 유배유여성은 무직에 비해 출생아수가 0.001명 많음
- 블루칼라 유배유여성은 무직에 비해 출생아수가 -0.04명 적음
- 아파트에 사는 유배유여성은 단독주택 거주자에 비해 출생아수가 0.03명 많음
- 연립/다세대에 사는 유배유여성은 단독주택에 비해 출생아수가 0.01명 많음
- 전세에 사는 유배유여성은 자기집 거주자에 비해 출생아수가 -0.02명 적음
- 월세/사글세에 사는 유배유여성은 단독주택에 비해 출생아수가 -0.02명 적음
- 무상에 사는 유배유여성은 단독주택에 비해 출생아수가 0.004명 많음
- 거주기간 1~3년 미만 거주자는 1년 미만 거주자에 비해 0.05명 총출생아수가 많음
- 거주기간 3~5년 미만 거주자는 1년 미만 거주자에 비해 0.06명 총출생아수가 많음
- 거주기간 5~10년 미만 거주자는 1년 미만 거주자에 비해 0.05명 총출생아수가 많음
- 거주기간 10년 이상 거주자는 1년 미만 거주자에 비해 0.02명 총출생아수가 많음
- 82~115㎡ 미만 거주자는 82㎡ 미만에 비해 총출생아수가 0.05명 많으며 115㎡ 이상은 0.04명 많음
- 이동소요시간 1분이 증가할수록 총출생아수는 -0.04명 적음

〈표 3-8〉 연구모형별 분석결과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공선성 통계량	
	베타	베타	베타	베타	베타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1.344***	0.003	0	0	0
현재만나이	0.615***	0.607***	0.601***	0.602***	0.616***	0.09***	0	0.575***	0.497	2.014
초혼연령	-0.587***	-0.582***	-0.579***	-0.58***	-0.588***	-0.107***	0	-0.559***	0.558	1.792
거주지(농촌)										
도시	-0.045***	-0.043***	-0.047***	-0.044***	-0.044***	-0.09***	0.001	-0.041***	0.949	1.054
학력(고등이하)										
대학이상	-0.008***	-0.005***	-0.001	-0.012***	0	-0.026***	0.001	-0.016***	0.818	1.222
직업(무직)										
화이트칼라	-0.09***	-0.09***	-0.088***	-0.091***	-0.067***	-0.12***	0.001	-0.067***	0.548	1.826
농림어업	0.001**	-0.004**	-0.002**	-0.003**	0	0.015**	0.005	0.001**	0.932	1.073
블루칼라	-0.056***	-0.057***	-0.058***	-0.058***	-0.044***	-0.078***	0.001	-0.037***	0.673	1.485
주택유형(단독)										
아파트	0.038***	-	-	-	-	0.048***	0.001	0.028***	0.585	1.708
연립다세대	0.012***	-	-	-	-	0.033***	0.002	0.013***	0.681	1.468
점유형태(자기집)										
전세	-	-0.035***	-	-	-	-0.03***	0.001	-0.018***	0.784	1.276
월삭세	-	-0.039***	-	-	-	-0.036***	0.001	-0.016***	0.742	1.348
무상	-	-0.001**	-	-	-	0.046***	0.005	0.004***	0.974	1.026
거주기간(1년미만)										
1~3년미만	-	-	0.048***	-	-	0.081***	0.001	0.048***	0.647	1.545
3~5년미만	-	-	0.055***	-	-	0.116***	0.001	0.053***	0.685	1.46
5~10년미만	-	-	0.051***	-	-	0.105***	0.001	0.052***	0.602	1.662
10년이상	-	-	0.016***	-	-	0.058***	0.002	0.017***	0.737	1.357
주거용면적(82㎡미만)										
82~115㎡미만	-	-	-	0.055***	-	0.089***	0.001	0.051***	0.851	1.175
115㎡이상	-	-	-	0.039***	-	0.135***	0.002	0.043***	0.91	1.099
이동소요시간(분)	-	-	-	-	-0.036***	-0.001***	0	-0.036***	0.566	1.768
수정된 R 제곱	0.295	0.296	0.297	0.298	0.295	0.303				
F값	143641.106***	129787.024***	118534.151***	145350.577***	161365.95***	70530.411***				
비가중 표본수(N)	284,952	284,952	284,952	284,952	284,952	284,952				

주: 1) ()는 기준집단(출산력이 강한집단으로 가정),

베타값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판단하는 기준임.

2) ***p(유의확률)<0.001, **p<0.01, *p<0.05

3) 화이트칼라(관리,전문,사무,군인), 블루칼라(서비스,판매,조작,기능,단순)로 분류함

4) 독립변수간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분석결과를 왜곡시키는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 0.1)이거나 VIF(분산팽창인자> 10)인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함

☞ 분석결과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판단함

VI. 결 론

1. 분석결과

□ 주거실태와 혼인력

- 결혼차수가 낮을수록 초혼연령은 늦어지고 있으며, 결혼차수가 높아질수록 단독주택, 자기집, 주거면적 115㎡+에서 거주비율이 증가함
- 결혼기간이 지속될수록 자기집 아파트 비율은 증가함
- 결혼 1년차 초혼여성은 자기집에서 28.9세, 아파트에서 28.8세, 주거면적 82~115㎡ 미만에서 29.3세로 평균초혼연령이 상대적으로 가장 늦음
 - 반면, 무상 28세, 단독주택 28.5세, 82㎡ 미만 28.6세로 평균초혼연령이 가장 빠름

□ 주거실태와 출산력

- 전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무상에서,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거면적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총출생아수가 가장 많음
- 결혼 5년차 미만인 경우, 무상 연립/다세대, 무상 단독주택에서 상대적으로 총출생아수가 가장 많음
 - 반면, 월·사글세 단독주택에서 총출생아수가 가장 적음
- 수도권에 거주하는 취약거주층(지하/옥상)의 결혼 1년차 총출생아수는 0.51명, 지상층은 0.49명임
 - 반면 결혼 2년차 이후로는 지하/옥상층에 비해 지상층의 총출생아수가 더 많음

□ 미혼자녀수별 소득계층별 주거실태

- 소득계층별 기준시 미혼자녀수 관계없이 저소득층은 단독주택에서, 중소득층은 다세대주택에서, 고소득층은 아파트에서 거주비율이 높음
- 저소득층 부부+미혼자녀(3명+) 가구는 전계층에서 보증부월세 비중이 25.7%로 가장 높음



-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소유률이 높으며, 미혼자녀수 관계없이 저소득층의 자기집 소유율이 가장 적음
 - 미혼자녀수 관계없이 소득이 많을수록 가구당 사용면적은 크며, 미혼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원당 사용면적은 적어짐
 - 소득이 적을수록 소비지출,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이 많으며, 미혼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비지출과 주거비 비중이 커짐
 - 부부+미혼자녀(0>3명+)가구 모두 저소득층일수록 임대료비율은 높으며,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중 부부+미혼자녀(3명+)가구의 저소득층은 임대료비율이 34.8%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 주거실태변수가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
-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 통제시 아파트, 연립주택에 살거나, 무상이거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주거면적이 82m² 이상인 경우에 총출생아수에 정(+적 영향을 미침
 - 전세나 월·사글세로 거주하거나, 이동소요시간에 증가하는 경우에 총출생아수에 부(-)적 영향을 미침

2. 연구시사점

- 주거문제와 결혼지연은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함
- 결혼 1년차의 주택유형별 점유형태 평균초혼연령은 자기집 단독주택 29.3세(최대), 무상 아파트 27.8세(최소)
- 주거문제와 총출생아수는 서로 연관성이 있고 결혼차수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결혼 1년차 : 사글세 아파트 0.73명(최대), 월세 단독주택 0.44명(최소)
 - 결혼 14년차 : 무상 연립/다세대 2.11명(최대), 사글세 단독주택 1.83명(최소)
- 미혼자녀수별 소득계층별 가구의 주거실태비중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저소득층은 단독주택, 고소득층은 아파트 거주비율이 가장 높음

- 저소득층 미혼3자녀+ 가구는 연립주택, 보증부월세, 자기집없음, 소득대비 소비지출, 임대율 비율이 가장 높음
- 주거실태변수가 총출생아수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
 -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살거나, 무상(부모집 등)으로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주거면적 82㎡ 이상인 경우에 총출생아수에 정(+)적 영향을 미침
 - 전세나 월·사글세에 살거나, 이동소요시간 증가하는 경우에 총출생아수에 부(-)적 영향을 미침
-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으로는 대표본자료를 이용, 결혼차수별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특히, 주택유형별 점유형태별 초혼연령 및 총출생아수 교차분석을 처음으로 실시함
- 신혼부부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전세임대, 주택대출지원 등 결혼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함

3. 연구한계

- 주거문제는 경제력(소득, 자산 등) 등 관련 변수와 연관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용성 한계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주거실태변수로 주거실태와 출산·혼인력분석을 실시하였음
 - 따라서 기본적인 주거실태와 출산·혼인력의 관계분석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경제특성변수와의 연관성 파악, 초혼당시와 자녀출산시 주거실태, 최초주택 구입년도, 주택마련방법, 대출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자료이용의 한계 및 횡단면 자료한계상 심도있는 분석에 한계가 있었음
 - 향후 등록센서스DB 자료, 종단면 자료 등을 활용한 심층분석 및 주거지원 정책효과에 대한 추가 분석 등이 필요함

【참 고 문 헌】

국토연구원(2012),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I) 총괄보고서”

국토해양부(2011),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주거행태와 결혼·출산간 연관성분석 연구보고서”



【부 록】

〈부표 3-1〉 주거실태와 관련 저출산 관련지표

	초혼연령		초혼건수	초혼인율 (천명당)	합계출산 율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남자	여자	(남녀 모두)			(종합)	아파트	단독	연립	(종합)	아파트	단독	연립
1970	-	-	-	9.2	4.53	-	-	-	-	-	-	-	-
1971	-	-	-	7.3	4.54	-	-	-	-	-	-	-	-
1972	-	-	-	7.3	4.12	-	-	-	-	-	-	-	-
1973	-	-	-	7.6	4.07	-	-	-	-	-	-	-	-
1974	-	-	-	7.5	3.77	-	-	-	-	-	-	-	-
1975	-	-	-	8	3.43	-	-	-	-	-	-	-	-
1976	-	-	-	8	3.00	-	-	-	-	-	-	-	-
1977	-	-	-	8.3	2.99	-	-	-	-	-	-	-	-
1978	-	-	-	9.3	2.64	-	-	-	-	-	-	-	-
1979	-	-	-	9.4	2.90	-	-	-	-	-	-	-	-
1980	-	-	-	10.6	2.82	-	-	-	-	-	-	-	-
1981	-	-	-	10.5	2.57	-	-	-	-	-	-	-	-
1982	-	-	-	9.9	2.39	-	-	-	-	-	-	-	-
1983	-	-	-	10.3	2.06	-	-	-	-	-	-	-	-
1984	-	-	-	9.5	1.74	-	-	-	-	-	-	-	-
1985	-	-	-	9.4	1.66	-	-	-	-	-	-	-	-
1986	-	-	-	9.5	1.58	39.1	23.7	68.2	44.7	23.9	15.5	43	23.2
1987	-	-	-	9.4	1.53	41.9	25.9	72.9	45.8	28.5	19	51	27.4
1988	-	-	-	9.8	1.55	47.4	31.1	80.3	52.2	28.9	19.3	51.5	27.5
1989	-	-	-	9.7	1.56	54.4	37.4	89.6	61.6	32.3	21.6	57.8	30.6
1990	27.79	24.78	356,649	9.3	1.57	65.8	49.5	103.1	76.3	38	26.4	66.3	37.3
1991	27.91	24.84	372,167	9.6	1.71	65.4	48.5	103.5	76.1	44.4	31.9	75.4	45.7
1992	28.01	24.93	372,040	9.6	1.76	62.2	46.1	98.5	71.7	45.2	33	75.9	47.6
1993	28.09	25.01	353,186	9	1.65	60.4	44.9	95.4	70	48.6	35.8	80.8	52.2
1994	28.21	25.14	342,021	8.7	1.66	60.3	45.2	94.7	69.9	49.8	37.1	82.1	53.1
1995	28.36	25.32	341,634	8.7	1.63	60.2	45.5	94.1	69.8	52.1	39.6	84.3	56.1
1996	28.4	25.45	370,799	9.4	1.57	61.1	47.1	93.9	70.1	54	41.5	86.6	58.5
1997	28.59	25.71	330,189	8.4	1.52	62.3	49.4	93.3	70.5	57.5	45.7	89.4	61.7
1998	28.83	26.02	313,851	8	1.45	54.6	42.7	82.9	62.2	58	46.5	89.3	62.1
1999	29.07	26.29	296,614	7.6	1.41	56.5	46.3	81.6	61.1	47.3	37.1	74.5	50.7
2000	29.28	26.49	271,843	7	1.47	56.7	47	80.5	61.5	55.2	47	77.1	58.5
2001	29.55	26.78	252,931	6.7	1.30	62.3	53.8	83.2	66.4	61.4	52.7	83.4	66.4
2002	29.77	27.01	239,977	6.3	1.17	72.5	66	89.6	73.5	71.5	63.3	92.5	76.1
2003	30.14	27.27	233,854	6.3	1.18	76.7	72.3	90.3	75.2	78.7	71	99.8	81.2
2004	30.53	27.52	231,257	6.4	1.15	75.1	71.9	87.1	71.1	77.6	70.7	96.8	79.3
2005	30.87	27.72	232,048	6.5	1.08	78.1	76.1	88.1	71.9	73.7	68.8	88.8	73
2006	30.96	27.79	255,197	6.8	1.12	87.2	86.6	92.6	81.8	75.9	72.8	87.2	72.8
2007	31.11	28.09	265,530	7	1.25	89.9	88.5	95.2	88.6	80.9	78.3	89.4	79.2
2008	31.38	28.32	249,425	6.6	1.19	92.7	90.5	97.1	95.6	82.9	79.8	91.6	83.9
2009	31.61	28.71	236,677	6.2	1.15	94.1	91.9	98	97.3	84.3	80.4	93.6	88.1
2010	31.84	28.91	254,630	6.5	1.23	95.9	94.3	98.7	98.2	87.2	84	94.5	90.3
2011	31.9	29.14	258,637	6.6	1.24	102.4	103.3	101.2	101	93.4	91.5	97.4	95.6
2012	32.13	29.41	257,003	6.5	1.30	102.4	103.1	102.1	100.7	104.9	106.3	102	103.2